



**중국, 화학제품 수입관세 10.6%인하
성정부의 승인아래**

중국 관세 당국은 성정부(State Council)의 승인 하에 지난 1월 1일부터 관세율 인하를 실시하고 있다. 관세인하 대상품목은 전체 수입의 약 49%의 비율을 차지하는 3천4백62개 제품이며, 관세인하 이후의 전체적인 관세 수준은 현행 16.4%에서 15.3%로 줄어들어 평균감소율 6.6%의 차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합성수지를 비롯한 몇몇 화학 제품들의 수입 관세는 평균 15% 인하하여 2000년에 평균 11.5%를 기록했던 화학제품의 수입관세가 올해는 10.6%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먼저 합성수지 제품의 관세율 변동을 살펴보면 PE의 경우, 수입관세율이 2~3%인하하여 15~16%수준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PVC와 PP의 몇몇 제품들은 작년에 비해 7%인하한 9%선으로 산정될 예정이나 PVC와 PP의 나머지 Grade들은 작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거나 1%인하한 16%가 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Grade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한편 Propylene, Benzene, Para-Xylene과 VCM의 관세비율은 각각 5%, 5%, 8% 그리고 10%로 작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부가적으로 PTA의 수입관세는 작년에 16%에서 올해 14%로 인하되는 것에 반해 Methyl ethylamine을 비롯한 몇몇 화학 제품들의 경우 오히려 수입 관세를 인상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화학 제품들 이외의 다른 카테고리별 제품들의 평균관세율 변동을 살펴보면 미네랄은 3.0%, 금속 원료는 7.4%, 수목제품(forest products)은 12.3%, 기계, 전자 제품들은 14.3%, 경공업 제품들은 14.8%, 건축 자재는 17.8%, 농업제품은 19.0%, 직물은 21.1%, 커뮤니케이션 장비들은 24%로 나타났다. 이러한 제품들 외에도 임시로 정해 놓은 관세율과 과세 품목의 선정에 대한 또 한번의 재조정으로 과세 품목의 수치가 현행 7천62에서 7천1백11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을 위해, 31억 달러에 상당 하는 7개의 프로젝트를 이 화학 단지 내에 추진할 계획이며, 이미 상하이 정부와 기초 동의안 서명도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Bayer는 이 프로젝트 추진 결정이 적절한 판단이며, 상하이의 화학 단지가 말로 이 프로젝트에 가장 적합한 장소라고 믿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대규모 투자 계획은 Bayer사의 대 중국 투자 전략의 제 2기라고 할 수 있다라고 Stachels 사장은 덧붙였다. Bayer사는 지난 10년 동안 중국 내 11개의 생산 기지를 설립해왔다.

독일 BASF·Bayer사 중국 상해 화학단지 투자 동아시아 최대규모

**중국, 1월 합성수지 시장동향
제품가격 인하폭 대비**

독일의 BASF사와 Bayer사를 비롯하여 영국, 미국, 일본의 화학 회사들이 중국 상해 화학 단지 조성 사업에 투자를 한 것으로 지난달 8일 발표됐다.

동아시아 최대규모로 조성되는 이번 화학단지는 중국의 석유화학산업 발전을 위한 거대 프로젝트다.

한편, BASF사와 미국의 Huntsman사는 10억 달러에 상당하는 Isocyanate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중국 내 회사들과 제휴를 했다. 2004년까지는 준공되어 가동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합작 공장은 화학 자재인 MDI와 TDI를 각각 연간 1백60만톤, 1백30만톤 생산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Bayer China사장 Elman Stachels는 Bayer사는 급부상하는 아시아 시장의 공급 기지 조성

1월 둘째 주 중국 합성수지 제조업체들은 공장도기준 제품 가격을 계속 인하 시켰는데 그 인하폭은 다소 미미했다.

전반적으로 중국 내 합성수지 시장은 1월 첫째주 비교하여 거의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또한 5대 국내 합성수지 시장 가격도 대다수 소폭의 변화만 나타내고 있다. 신정 연휴 후 잇달아 구정연휴가 주말부터 시작된 관계로 시장에서 거래량은 다소 미미한 수준이나 2001년 1월부터 합성수지 수입관세가 인하되는 동시에 부분적으로 원료제품의 수입관세도 인하된다고 세관 관계자가 최근 밝힘에 따라 일부 합성수지의 경우(PE, PP및 PS) 수입 Inquiry가 차츰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1월 둘째 주 중국 내수시장 가격동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HDPE의 경우 공장도 가격이

톤 당 50~100RMB 인하 되었고, LDPE의 경우는 100~200RMB정도 하락하였다.

반면, LLDPE 공장도 가격은 1월 첫째 주와 비교하여 큰 변화가 없었다. PP의 경우 공장도 가격이 톤 당 약 50~250RMB정도 하락하였으며 PS, ABS의 경우는 가격이 이미 낮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톤 당 +/-100RMB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고 End-User들의 수요도 감소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 미루어볼 때 금주 시장 상황도 여전히 큰 변화 없이 약보합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대일본인크화학 불포화폴리에스터 세계 수위
세계전략 확충**

일본 대일본인크화학공업(DIC)사는 불포화 폴리에스터수지 사업의 세계전략을 확충할 방침이다. 97년에 미국 자회사인 라이히홀드가 노르웨이의 요튼에서 이 수지 사업을 매수해 DIC 그룹으로 세계 선두의 점유율을 확보했으나, 최근 새로 라이히홀드를 통해 브라질에서 동국 4위 메이커인 파이버센터(FC)社の 이 수지 및 겔코트 사업을 매수하는 한편, 남아프리카에서는 선두 메이커인 NCS 레진社를 매수하기로 합의해 계약에 조인했다.

이로써 브라질에서 선두의 지위를 보다 강화하는 한편, 남아프리카에 거점을 확보하게 된다. 또한 브라질에서는 라이히홀드 100% 자회사인 레자이네가 생산능력의 50% 증강을 추진하고 있고, 이번의 사업매수와 함께 중남미에서 사업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중국, Teijin Chemical사 설비증설 고려
미국에 신플랜트 건설 추진**

중국 Teijin Chemical사는 PC사업 강화 방안으로 미국에 PC(Polycarbonate) 플랜트 설립할 것인지, 싱가포르에 제5호 PC라인을 증설할 것인지 고려하고 있다.

현지 관계자들에 따르면, 미국에 플랜트 신설을 선호하고 있으나 지역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한다.

한편 자회사인 Teijin Polycarbonate Singapore(TPS)는 2002년 중반 가동을 목표로 제4호 PC라인(연산 5만톤)을 증설하기로 결정되었으며, 이 라인이 완성하게 되면 TPS의 전체 PC생산능력은 연산 18만톤이 된다. 또한 2001년 중반 가동할 것으로 보이는 제3호 PC라인 건설을 시작했다.

**일본, 유니티카사 포장용 필름 가격인상
수요확대 예상**

일본 유니티카사는 포장용 나일론 필름과 PET필름의 가격을 인상할 방침이다. 올 2월 9일 출하분부터 나일론 필름이 15 μ m 두께 일련(一連)당 500~600엔, PET필름이 12 μ m 일련당 400엔의 가격 인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가격 인상으로 원료비용 상승분의 전가와 재투자가 가능한 사업채산 레벨까지 시정할 방침이다. 포장용 나일론과 PET필름은 요 수년 확대경향에

있다. 특히 나일론 필름은 재 보충 용기의 용도 등, 수요는 왕성하고 대규모의 증강도 없었기 때문에 타이트한 움직임으로 되고 있다. 또한 PET필름도 작년은 2자리수대 성장을 보이는 등 급속하게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채산 면에서는 원료인 카프로락탐과 고순도텔레프탈산의 가격 상승으로 악화되고 있다. 때문에 작년 가을에 가격 인상을 행했으나, 나일론은 요구액에 이르지 못하고, PET는 가격 인상을 할 수 없었다. 더욱이 올해 들어 나프타의 앙등으로 원료 가격은 높게 머물러 있고, 사업채산 악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유니티카는 향후 설비 재투자과 품질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격 인상을 단행할 방침이다.

일본, 화학 4개사 합성수지 부문 통합 미쓰비시 화학, 일본석유화학 등

일본의 미쓰비시화학, 쇼와전공, 도우넨(東燃)화학, 일본석유화학 등 화학 대기업 4개사는 합성수지의 주력인 폴리에틸렌 사업을 오는 10월께 통합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정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18일자 보도에 의하면 4개사는 공동 출자회사를 재편하는 형식으로 사업을 통합한다.

통합안은 미쓰비시화학이 65%, 도우넨화학이 35% 출자하는 일본폴리켄(도쿄 지요다구)이 폴리에틸렌사업을 분리한후 쇼와전공이 65%, 일본석유화학이 35% 출자하는 일본폴리올레핀(도쿄 미나토구)과 통합, 4개사의 공동출

자 회사를 만드는 안이다.

통합회사의 출자비율은 일본폴리켄이 전체 주식의 과반수를 확보, 미쓰비시화학이 제 1주주가 되는 방향으로 조정되고 있다. 통합회사의 생산능력은 연산 1백33만t으로 오는 10월에 발족하는 '스미토모화학공업-미쓰이화학'의 합성수지통합회사를 제치고 일본내 1위, 아시아에서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일본, 미쓰이화학 PET병 설비 증설 내열그레이트 수요확산 추정

일본 미쓰이화학은 岩國·大竹공장(아마구치현)의 병용 PET수지의 생산, 공급능력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차, 주스의 병에 이용되는 내열그레이트의 수요가 홈 유스의 확대 등으로 증대하고 있는 것에 대응할 방침이다.

岩國·大竹공장의 디보틀넥킹 등으로 2002년 3월 말을 목표로 약 3만2000톤 증강, 일본내 19만톤 체제를 확립할 계획이다.

또한 앞서 인도네시아 거점에서 증설을 결정한 물 및 탄산음료용 병용 PET수지 설비도 올해 말에는 완성, 가동할 예정으로, 당분간의 수요 증가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체제가 확립 될 것으로 예상된다. [K]

신제품 및 업체 소개
월간 포장계 편집실
(02)835-9041